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도와 子女의 人性과의 相關研究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or Child-Concern and Children's Personality

명지대학교 가정과
조교수 李 喜 子
충북대학교 가정과
조교수 鄭 鈴 淑

目 次	
I. 緒 論	2. 測定道具
1. 研究의 必要性	3. 資料處理
2. 研究의 目的	V. 結果 및 鮮釋
II. 理論的 背景	1. 研究對象兒의 家族環境
III. 研究問題	2.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度の 要因別 分析
1. 研究問題	3.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도와 子女의 人性과의 相關關係
2. 研究問題 設定의 理由	VI. 論 議
IV. 研究方法	參考文獻
1. 研究對象 및 期間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find out several factors which relate to father's rearing attitude and father's concern influencing on children's personality development and 2) to examine closely the correlation between father and children's personality.

For the study, cases of 914 children from Seoul and Chong-Ju were sampled to put their personality on test and to investigate on the father's attitude for child rearing and child-concern.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research are questionnaires, which the investigators made, to examine the father's attitude for child-rearing and child-concern, and the

child-personality test performed by Ph. D. B. M. Jeong.

The results obtaine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Most fathers were found to be more affectionate to daughters than to sons in their attitude for child-rearing and child-concern, and fathers in Chong-Ju had the tendency to have more concern about the first child.
2. The more educated fathers, public official or company employee, and Christian or Catholic, showed much more concern about their children, which was shown in this study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1$, F-test).
3. There were no sex differences in correlations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or child-concern and child-personality.
4.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was highly related to child's birth order. That is : the first child showed the low coefficient in general-activity and impulsiveness, and showed the high coefficient in emotional stability of personality traits when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was high.
5. Regardless of sex, birth order, economic level, children showed high coefficient in dominance, reflectiveness, and sociability of personality traits when father's child-concern was high.
6. Children in Chong-Ju also presented high marks at percentile in emotional stability when they liked grand-fathers and fathers.
7. Children who identify their fathers showed the high marks in emotional stability, specially cases of Chong-Ju were statistically more significant ($P < .05$, F-test).
8. There were much differences in percentile marks of personality traits among children in Seoul and Chong-Ju; the marks which children in Chong-Ju made were average 13.71 score lower than those of Seoul in general-activity, dominance, impulsiveness, reflectiveness, sociability only except emotional stability.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人間の人性發達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時期는 幼兒期와 兒童期임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 期間 중에 子女가 父母로부터 받는 影響은 子女의 人性을 直接的으로 크게 左右한다.

兒童養育에 있어서 어머니의 役割이 重大함은 여러가지 研究를 통하여 많이 強調되

어 왔으며, 따라서 잘 認識되어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子女間의 關係를 밝힌 研究는 다른 研究들에 비하면 外國에서도 적은 편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遂行되고 있지 않다.

우리 나라에서는 過去에 아버지가 子女養育과 教育에 있어서 關心을 갖일 뿐만 아니라 直接 擔當하여 왔으므로 아버지가 子女의 龜鑑이 되었고, 또한 嚴父慈母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仁慈한 어머니로부터는

影響받기 어려운 道德性 및 社會化의 여러 特性은 嚴한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習得하였다. 그러나 西歐文化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버지는 子女教育의 一線에서 물러서는 傾向이며, 子女教育을 어머니에게만 一任하는 家庭 教育의 形態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점차 家庭 內에서 아버지의 權威가 橫的 關係로 變化됨으로서 바람직한 家庭의 零圈氣를 造成하지 못하는 境遇도 많으며 이런 家庭에서는 아버지가 子女에 대하여 適切한 役割을 行使하기 어렵다.

더욱이 産業社會에서 實利를 追求하는 가운데 海外就業이라든가 長期出張 또는 留學 등의 理由로 아버지가 家庭을 비우는 事例가 많았으므로 兒童의 편에서는 人性形成에 缺陷을 주는 要因이 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家族制度 속에서는 父母가 모두 子女의 性別 또는 出生順位等에 따라서 養育態度나 養育關心을 다르게 갖기도 한다. 그러므로 비슷한 家庭環境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男兒와 女兒 또는 맏아기와 둘째아기가 人性의 差異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學力, 職業, 또는 宗教에 따라서 子女에 對한 養育態度와 關心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子女의 人性에 差異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要因들을 찾아내어 子女人性과의 相關을 밝혀내는 研究가 계속 되어져야 한다. 그다음에 子女들이 바람직한 人性을 形成해나가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 說明된 바와 같이 아버지가 子女養育에 있어서 疎忽하거나 無心한 家庭이 많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와같은 家庭의 兒童들이 人性發達 過程에서 어떠한 障礙를 나타내는지에 對하여 研究할 必要가 있다. 즉 아버지가 子女에 대하여 갖는 養育態度

또는 關心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子女의 人性이 어떠한 差異를 보이는가를 研究함으로써 아버지의 子女에 대한 影響을 把握할 수 있으며, 結果에 따라 對備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 研究의 目的

兒童의 人性發達에 作用하는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에 關係하는 여러 要因들을 찾아내고, 아버지와 子女人性 兩者間的 相關關係를 糾明하려는 것이 본 研究의 目的이다. 또한 이 研究를 통하여 子女에 對한 아버지의 關心을 높이고, 養育態度를 바람직한 方向으로 誘導할 수 있는 契機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버지가 不在인 境遇는 더 말할 必要도 없으며 아버지가 子女와 時間을 많이 나누어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一般的으로 安定感이 적고 社會性이 不足하며 性役割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研究結果들이 있다.

Lynn과 Sawrey(1959)는 아버지가 없는 少年少女들은 다른 兒童들 보다 性格의인 面에서 더 小兒的이고 依存的인 傾向을 나타내고, 따라서 친구들과의 關係를 활발하게 進行시키지 못한다고 報告하였다(Watson & Lindgren, 1973). 子女와 아버지 사이에 相互作用이 없는 경우에는 兒童이 自信感이 적으며 따라서 社會化도 늦어지기 쉬울 것이라고 假定해 볼 수 있겠다. 아버지가 子女를 受容의 態度로 養育한다면 兒童은 安定感을 가지고 每事에 積極의 姿勢로 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要因들은 兒童의 人格形成에 크게 作用할 것이다. 그러므로 子女의 人格에 영향주는 아버지 要因은 밝혀져야 한다. 그다음에 밝혀진 要因이 兒童의 人性을 바람직한 方向으로 發達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家庭의 環

境을 造成시켜 주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 한다.

본 研究의 結果를 要因分析하여 아버지와 子女間的 相關을 찾아내므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影響에 관한 研究를 보다 力動的으로 遂行하는 契機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I. 理論的 背景

兒童의 人性發達 過程에 있어서 影響을 주는 要因들은 많으며, 그러한 要因에 따라서 子女를 다루는 父母의 養育態도와 關心度는 變化한다. 이와같은 父母의 養育態도와 關心의 問題 중에서 어머니에 對한 것은 많이 研究되었고 따라서 그 重要性에 對하여 論議되어 왔으나,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의 問題는 더욱 研究하여 糾明하여야 할 內容들이 많다.

지금까지 研究된 父子關係를 다룬 論文의 結果중에서 아버지의 役割이 作用한 人性發達의 領域을 1) 自尊心과 道德性 2) 社會性과 相互關係 3) 衝動性과 反社會的 行動의 세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考察하여 本 研究의 理論的 背景으로 하였다.

1. 自尊心과 道德性

子女에 對해서 아버지가 繼續적으로 關心을 가질때 子女의 自尊心과 自我發達에 影響을 준다고 한 研究들에 依하면 Sears(1970)는 어머니를 통해서 얻은 資料에서 父性의 따뜻함과 6學年 少年들의 自尊心은 相關關係가 높다고 하였고, Coopersmith(1967)는 國民學校 少年을 對象으로한 研究에서, 아버지가 積極적으로 子女指導에 關與하였을 때 少年들의 自尊心과 높은 關係가 있었고, 아버지를 信任할 수 있는 少年들은 自尊心이 높다고 하였으며, 또한 自尊心이 낮은 少年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依해서

더 많이 訓育을 받았다고 言及하였다. Rosenberg(1965)의 研究結果는 어린時節의 아버지-子女關係는 子女의 自尊心 發達에 特히 重要하다고 하였으며 어린時節에 아버지가 없었을 때는 더욱 낮은 自尊心을 갖는다고 하였다.

Mussen, Young, Gaddini와 Morante(1963)은 아버지와 滿足스럽지 못한 關係를 가진 思春期 少年들은 特히 拒絕感과 不幸을 느낀다고 하였다.

Medinmus(1965)는 大學生의 自尊心은 父性의 사랑과 背定的인 關係가 있고 父性의 拒絕과 怠慢과는 否定的인 關係가 있다고 하였다. Slater(1962)는 大學生들의 自我感과 社會的 能力에 關해서 높은 點數를 얻은 學生들은 그들의 父母들이 子女에 對해서 情緒적으로 支持的인 關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反面에 낮은 點數를 얻은 學生들은 그들의 父母들이 그들의 慾求를 禁止하고 警戒한다고 報告하였다.

道德性 發達에 關하여 Hoffman(1971a)은 아버지 없는 7學年 少年들이 道德의 多樣한 目錄에서 아버지가 있는 少年들보다 낮은 點數를 나타내었으며 더욱이 先生님들에 對하여 攻擊的인 態도와 自己管理의 어려움을 많이 나타냈다고 하였다. Hollstein(1972)은 情緒적으로 成熟된 少年들에게는 따뜻하고 養育의이고 道德적으로 成熟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發見하였고, Santrock(1975)는 아버지가 없는 어린이들이, 아버지가 있는 어린이보다 情緒적인 成熟에 있어서 낮은 比率을 보였다고 하였다.

2. 社會性과 相互人間關係

Lipper와 Block(1973)는 社會성이 높고 成功的인 사람은 그들의 父母와 滿足한 關係를 가진 家庭에서 成長했고 또한 子女養育에 아버지의 參與가 높았으며, 낮은 社會

化의 技術과 人格不適應을 나타내었던 사람은 父母가 矛盾된 性格을 갖고, 子女에 對해서 아버지의 參與가 적은 家庭에서 成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父子關係는 다른 사람과의 關係에 많은 影響을 준다는 研究가 있다. Lois Meek Stolz와 그의 同僚들(1954)에 依하면 乳兒期(baby hood)에 父의 不在를 經驗한 4才에서 8才의 어린이는 어머니에게 더 依存的이고 不安해 하고 規則的인 生活에 對한 訓練이 不足하였으며 特히 男子어린이는 男性답지 못한 傾向이었다. E. Mavis Hetherington(19·)도 아버지가 없는 家庭과 아버지가 있는 家庭의 不流層 黑白人 青年前期 少年들의 比較研究에서 아버지不在인 少年이 親舊들에게 情緒的으로 더욱 依存的이라고 하였고 特히 아버지와 헤어진 나이가 重要하다고 하였다. 즉 4才 혹은 그 以前에 헤어진 어린이가 6才以後에 헤어진 어린이보다 同僚나 成人에 對해 덜 依存的이었다고 하였다.

少年들을 爲해서 男性的인 아버지의 存在, 積極的인 父子關係는 男性的 性役割行動과 同僚間的 成功的인 關係와 相關이 높다고 한다. 高等學校學生들의 研究에서 Helper(1955)는 아버지와 同一視感을 갖는 少年들은 그들 친구들에게 높이 認定된다는 것을 發見했다.

Lois Hoffman(1961)의 研究結果는 어머니가 支配的인 家庭의 少年은 아버지가 支配的인 家庭의 少年보다 同僚關係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즉 影響力 있는 親舊에게 매우 衝動的이고 無能力하다고 보고 하였다. Hetherington과 Deur(1971)에 依하면 父의 不在는 少年에게서 學齡前期에 社會的 發達과 人性發達에 있어서 女性的 行動이 많이 나타나며 少女의 경우는 人生初

期에 父의 不在의 影響은 거의 없으나 成人期에서 異性關係에 심한 不適應 現象이 나타난다고 하였다(Brofen brenner Mahoney 1975)

Andrews와 Cristenesen(1951)의 資料結果 父母가 離婚했던 大學生들은 단지 빈번한 異性關係를 가질 뿐이라고 했고 다른 研究者들은 어린時節에 家庭破綻으로 父의 不在 經驗을 가진 사람은 結婚生活에서 離婚 또는 別居하는 傾向이 있다고 하였다(Landis 1965, Röhler & Edmonson 1966)

한편 아버지가 女性的 結婚適應과 人性發達에 影響을 준 研究에 依하면 Luckey(1960)는 女性이 成功的인 結婚을 할 수 있는 能力은 딸의 女性다운을 認定하는 溫和하고 愛情있는 아버지를 經驗할때 증가 하였으며 離婚, 別居, 또는 不幸한 結婚을한 사람은 어린시절에 아버지가 없었거나 또는 아버지와 빈약하고 매우 부적응한 關係를 가졌던 女性中에 훨씬 많았다고 報告하였다. 또한 Mussen과 Rutherford(1963)는 女性다운 少女들의 아버지는 여성답지않은 소녀들의 아버지보다 딸의 性行動發達을 촉진시켰다고 하였으며, Good enough(1957)의 研究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딸의 性役割發達에 影響을 준다는 見解를 지지했다. 成功的인 아내, 어머니인 女性들은 兩親이 受容的인 養育態度를 가진 家庭에서 자랐으며 女性들이 性役割(sex-role)이 잘 發達되고 女性에 對한 自負心을 가질 경우 和睦한 家庭을 가질뿐만 아니라 成功的인 職業人으로서 女性의 內의 人格完成을 成就하려는 傾向이었다고 하였다. (Biller 1971 a, 1974 a, Biller & Meredith 1974)

3. 衝動性과 反社會的 行動

Walter Mischel(1958)은 아버지가 不在

인 兒童은 그들의 欲求나 必要에 對해서 참을성이 적으며 父의 不在를 어릴때 經驗한 兒童일수록 成人에 對한 信賴感이 낮다고 報告하였다. 또한 5學年 少年들을 對象으로한 Santrock와 Wohlford (1970)의 滿足感의 延期에 對한 研究에서 離婚으로 아버지 不在인 少年들이 死別로 아버지가 없는 少年들보다 滿足感을 延期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으며 2才 以前에 아버지와 떨어진 少年들이 그 以後에 아버지와 헤어진 少年들 보다 더 즉각적인 喜悅을 選擇하는 傾向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Siegman (1966)은 아버지가 없는 少年들은 어린時節에 同一視 對象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強한 同一視를 나타내는 한편 아버지와 同一視에 對한 失敗는 反社會的 行爲를 誘發한다고 하였다.

大學生을 對象으로한 Sopchak (1952)의 研究에서 父母와 強한 同一視를 나타낸 大學生들은 人性檢査(M. M. P. I)에서 不安과 不適應 現象을 나타내었고 Lazowick (1955) 아버지를 同一視 對象으로 생각하는 아들일수록 安定性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Gray (1959)는 5學年에서 9學年 學生들 研究에서 아버지와 強한 同一視를 나타낸 少年들이 同級生과의 關係에서 긍정적임을 報告하였다.

Meerlo (1956)은 反社會的인 行動을 하는 少年은 衝動的인 일 뿐만 아니라 攻擊的이고 滿足을 延期할 수 없고 부정확한 시간 관념, 社會的 의무의 결핍, 낮은 성취동기, 그리고 소년범죄 行爲와 關聯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Douvan과 Adelson (1966)은 아버지가 없는 思春期 少年에게서 權威意識에 對한 反抗과 人間에 對한 拒否感을 發見하였고, Blanchard와 Biller (1971)는 아버지가 아들에 對해서 成就, 忍耐, 競爭

의 模範이 되며 學齡前期가 아버지 不在인 兒童에게 더욱 無能力한 影響을 주는 決定的인 時期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III. 研究問題

1. 研究問題

본 研究에서 밝히고자 하는 研究問題들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1) 研究對象兒 아버지가 子女에 對하여 갖는 養育態度 및 關心이 子女의 性別 또는 出生順位에 따라서 어떻게 달리 나타날 것인가?

2) 研究對象兒 아버지의 學力, 職業, 宗教에 따라서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에 差異가 나타날 것인가?

3) 研究對象兒 아버지가 갖는 子女에 대한 養育態度 및 關心이 子女의 性別, 出生順位, 또는 經濟狀態에 따라서 子女의 人性特性(活動性, 支配性, 安定性, 衝動性, 思慮性, 社會性)에 어떠한 影響을 주는가?

4) 研究對象兒가 自身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認定하거나 또는 自己가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家族과 兒童의 人性平點과는 어떠한 相關이 나타날 것인가?

5) 研究對象兒와 아버지 사이에 愛情 受容面에서 相互 認定하는 그룹 또는 그렇지 않은 그룹들과 兒童의 人性平點과는 어떠한 相關關係가 나타날 것인가?

6) 위에서 設定한 研究問題들이 地域的(서울·淸州)으로는 어떠한 差異가 나타나며, 또는 共通的인 傾向을 보이는가?

2. 研究問題 設定의 理由

1) 子女의 性別과 出生順位에 따라서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에 差異가 나타나는가?

우리나라 家族制度는 直系家族制度로서 慣習의으로 長男優待 및 男兒尊重 思想이 優勢하였으므로 長男이 次男 보다 그리고 男兒가 女兒 보다 父母로부터 더욱 細心한 關心을 받으며 成長한다. 果然, 現代家庭에서도 아버지들이 이러한 傾向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問題를 研究하고자 하였다.

2) 研究對象兒 아버지의 學力, 職業, 또는 宗教에 따라서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에 差異가 나타나는가?

一般的으로 子女養育에 影響을 주는 要因으로 父母의 學力, 職業, 宗教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와같은 要因을 달리 할 때, 子女에 대하여 養育態도와 養育關心을 다르게 나타내는지를 實證해 보고자 이 研究問題를 設定하였다.

3) 研究對象兒의 性別, 出生順位, 經濟狀態에 따라서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과 子女의 人性 사이에는 어떠한 相關關係가 있는가?

아버지가 子女에 대하여 人格의인 待遇를 해주고 受容的으로 키울 때와 子女에게 細心한 配應를 해줄 때 子女의 人性을 6가지 範疇로 區分하여 活動性, 支配性, 安定性, 衝動性, 思慮性, 社會性과 어떻게 相關을 나타내는가를 찾아내기 위하여 이 研究問題를 選擇하였다.

一般的인 지금까지의 研究報告에 의하면 아버지의 養育態도와 關心이 높으면 子女의 安定性和 社會성이 특히 優秀하다고 하는데 이 結論을 檢證하고자 하였다.

4) 研究對象兒와 아버지 사이의 相互愛情關係와 子女의 人性平點과는 어떤 相關이 있는가?

兒童의 人性發達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父母로부터 사랑을 充分하게 받으면서

成長하는가? 하는 것과 同一視하게 되는 對象이 누구이며 同一視하기 원하는 모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러한 모델이 될 때 子女의 人性平點과의 相關을 찾아보는 것도 重要하다 하겠다.

또 다른 角度에서 分析할 必要가 있는 研究問題는 아버지와 子女가 相互 認定하는 關係에 있는가 또는 子女가 생각할 때 相互 認定하는 境遇가 아닌가에 따라 子女의 人性平點 사이에 相關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5) 본 研究에서 設定한 諸問題들이 地域的으로 어떠한 差異가 나타나며, 共通의인 傾向을 보이는가?

一般的으로 서울과 地方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差異는 生活習慣, 生活水準, 文化的 背景, 思考方式等 多方面에서 느낄 수 있다. 그런데 그와같은 環境的 要因이 다른 零團氣에서 成長하는 兒童들에게서 나타나는 人性特徵이 다를 可能性이 많으며, 아버지로부터 받는 養育關心도 다를 것이다.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度의 狀況을 把握하거나 人性과의 相關을 알아보는 데는 어느 한 地域의 兒童만을 標集하는 것으로는 不足하다. 따라서 標準化할 수 있는 研究結果가 되기 위하여서는 地域을 달리하여 研究對象을 標集選定하여 調査하고 그 結果를 比較 檢討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하여 이 研究問題를 設定하였다.

IV. 研究方法

1. 研究對象 및 期間

研究對象은 서울에서는 公立學校인 은평 국민학교와 私立學校인 명지국민학교의 5학년 학생 452名이었고, 淸州에서는 公立學校인 교동국민학교와 私立學校인 운호국민

학교의 4, 5학년 학생 462명으로 모두 914명이었다. 調査는 訓練받은 明知大學과 忠北大學校 家政學科 3學年生 4명이 서울과 淸州에서 各各 施行하였으며, 國民학교 擔任教師들의 協助를 받았다. 調査對象兒 중 男兒는 501名이고, 女兒는 413名이다. 調査期間은 1978年 11月 15일부터 12月 15일까지였다.

2. 測定道具

本研究에서 사용한 質門紙는 2가지로 하나는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을 測定해보기 위한 質門紙를 作成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鄭範謨作 國民學校用 人性檢査로서 6個 領域의 人性特性을 測定할 수 있도록 製作된 것이다.

3. 資料處理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養育態度와 關心을 調査한 質門紙에서 對象兒童의 家族事項은 門項別로 百分率로 計算하였고, 아버지의 養育態度와 養育關心은 點數로 表示하였다. 즉 養育態度를 알아본 門項은 7個인데 1~3點의 配點으로 總點은 7點부터 21點이고, 養育關心에 관한 配點은 13個이며 역시 1~3點의 配點으로 總點은 13點부터 39點까지의 分布를 나타낸다. 人性檢査紙는 채점하여 百分率點數로 換算하였다. 이 研究에서 調査된 結果들은 모두 統計處理하였으며, 아버지의 養育態度와 關心의 點數는 여러가지 要因別로 分析하여 有意度를 F-Test를 通하여 檢證하였으며, 子女의 人性과의 關係는 相關係數를 내어 살펴보았다.

V. 結果 및 解釋

1. 研究對象兒의 家族環境

調査對象兒는 서울과 淸州에서 男兒가 501

名이고 女兒가 413名으로 모두 914名이었다. 서울의 調査兒童은 男兒 모두 452名이고 淸州에서는 男兒 모두 462名으로 전체가 914名이었다.

〈表 1〉 研究對象兒童

Sex	Male	Female	Total
seoul	233(51.55)	219(48.45)	452
Chongju	268(58.01)	194(41.99)	462
Total	501(54.81)	413(45.19)	914

研究對象兒를 出生順位別로 보면 첫째 아이가 38%인 348名이고, 중간에 속하는 아이가 약 37%로 336名이고, 막내는 약 25%로 230名이었다. 서울은 첫째 아이가 45% 정도로 가장 많았고, 淸州는 중간 아이가 40% 정도로 가장 많았다.

〈表 2〉 研究對象兒의 出生順位

Birth Order	First	Middle	Last
Seoul	204(45.13)	149(32.96)	99(21.90)
Chongju	144(31.17)	187(40.48)	131(28.35)
Total	348(38.07)	336(36.76)	230(25.16)

研究對象兒의 家族數는 서울과 淸州에서 똑같이 5~6名인 家族이 반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대체적으로 서울 보다 淸州가 家族數가 많은 편이다. 兒童들의 經濟狀態를 보면 生活水準이 보통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과 淸州에서 兒童들 자신들이 느끼는 經濟狀態에는 差異가 있을 것이다. 一般의 으로 서울에 사는 兒童들의 生活環境이 淸州보다 豊富할 것이나 本 研究調査에서는 兒童들이 自覺하는 것이 더 重要하다고 생각되므로 客觀的으로 家庭環境을 評價하지 않고 兒童들이 직접 생각되는 바를 적도록 하였다.

調査對象 兒童의 아버지의 年齡을 보면 36~45才까지가 약 70% 이상이었고, 平均

〈表 3〉 研究對象兒의 家族數

Family Size	3~4 Persons	5~6	7~8	9 over	M
Seoul	60(13.27)	285(63.05)	92(20.35)	15(3.32)	5.72
Chongju	44(9.52)	248(53.68)	126(27.27)	44(9.52)	6.22
Total	104(11.38)	533(58.31)	218(23.85)	59(6.46)	5.98

年令은 서울과 淸州가 똑같이 43才였다.

아버지의 學力을 보면 서울은 大學을 卒業한 경우가 50% 이상으로 가장 많고, 淸州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경우가 29% 정도 大卒 아버지보다 약간 더 많았으며 學力이 全般的으로 서울 보다 떨어졌다.

아버지 職業을 보면 서울은 會社員이 가장 많았으며, 淸州는 公務員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商業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많았다.

아버지의 宗教에 있어서는 서울과 淸州 모두 佛敎信者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基督敎인데 基督敎信者는 서울이 淸州 보다 더 많았다. 無宗教인 아버지도 35~40%로 많았다.

〈表 4〉 研究對象兒의 經濟狀態

Economic Condition	Under Middle	Middle	Rich
Seoul	10(2.21)	367(81.19)	75(16.59)
Chongju	41(8.87)	375(81.97)	46(9.96)
Total	51(5.58)	742(81.18)	121(13.24)

아버지가 기대하는 子女의 將來 希望職業을 보면 서울은 醫師가 가장 높으나 淸州는 公務員을 더 원하며 法曹人에 대한 기대도 큰 편이다. 서울과 淸州에서 다른 傾向을 보인다.

아버지의 子女에 대한 養育態度를 알아본 養育態度 點數에 있어서 서울과 淸州가 같이 平均點數가 15點으로 나왔다. 가장 바

〈表 5〉 아버지의 年令

age	31~35	36~40	41~45	46~50	51~55	56 Over	M
Seoul	7(1.61)	95(21.84)	227(52.18)	80(18.39)	18(4.14)	8(1.84)	43.36
Chongju	14(3.08)	148(32.53)	185(40.66)	58(12.75)	32(7.03)	18(3.96)	43.05
Total	21(2.36)	243(27.30)	412(46.29)	138(15.50)	50(5.62)	26(2.92)	43.21

〈表 6〉 아버지의 學力

School Career	Uneducated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College above
Seoul	0(0)	13(2.88)	32(7.08)	97(21.46)	228(50.44)	82(18.14)
Chongju	14(3.03)	84(18.18)	72(15.58)	135(29.22)	128(27.70)	29(6.28)
Total	14(1.53)	97(10.61)	104(11.38)	232(25.38)	356(38.95)	111(12.14)

〈表 7〉 아버지의 職業

Job	Agriculture	Industry	Commerce	Offical	Company	Others	None
Seoul	4(0.88)	37(8.18)	91(20.13)	89(19.69)	126(27.88)	98(21.68)	7(1.55)
Chongju	29(6.28)	22(4.76)	121(26.19)	139(30.09)	54(11.69)	76(16.45)	21(4.54)
Total	33(3.61)	59(6.46)	212(23.19)	228(24.94)	180(19.69)	174(19.04)	28(3.06)

람직한 上位 點數圈인 19~21點에 들어있는 경우는 서울이 9% 정도, 淸州가 4% 정도로 낮은 편이다. 아버지의 子女에 대한 關心狀態를 點數로 보면 서울은 平點이 약 31點이고, 淸州는 平點이 약 28點으로 3點 정도가 서울 보다 낮았다. 一般적으로 子女에 대한 關心與否는 서울이 淸州보다 더욱 높은 편이었다. 즉 39點 滿點에서 27點 이

상이 서울은 약 86%에 해당하나 滿州의 경우는 약 65% 정도이다. 아버지의 子女에 대한 關心度는 서울이 地方인 淸州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子女에 대한 養育態度와 關心度가 서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서울에 사는 아버지의 學力이 높은 것과 相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表 8〉 아버지의 宗教

Religion	Christian	Catholic	Buddhist	Contucianism	Others	None
Seoul	103(22.79)	33(7.30)	146(32.30)	3(0.66)	8(1.77)	159(35.18)
Chongju	47(10.17)	38(8.23)	172(37.23)	1(0.22)	20(4.33)	184(39.83)
Total	150(16.41)	71(7.77)	318(34.79)	4(0.44)	28(3.06)	343(37.53)

〈表 9〉 아버지의 子女에 對한 將來 希望職業

Wanted Job	Politics	Scholar	Co. Manager	Official	Doctor	Lawer	Others
Seoul	37(8.18)	59(13.05)	38(8.41)	33(7.30)	101(22.35)	48(10.62)	136(30.09)
Chongju	39(8.44)	49(10.61)	51(11.04)	102(22.08)	56(12.12)	88(19.05)	77(16.67)
Total	76(8.32)	108(11.82)	89(9.74)	135(14.77)	157(17.18)	136(14.88)	213(23.30)

〈表 10〉 아버지의 子女에 對한 養育態度

Rearing Attitude score	7~10	11~14	15~18	19~21	M
Seoul	3(0.66)	126(27.87)	283(62.61)	40(8.85)	15.7
Chongju	5(1.08)	150(32.47)	288(62.34)	19(4.11)	15.2
Total	8(0.87)	276(30.20)	571(62.47)	59(6.46)	15.5

〈表 11〉 아버지의 子女에 對한 關心度

Concern Extent score	13~19	20~26	27~33	34~39	M
Seoul	8(1.77)	54(11.95)	254(56.19)	136(30.09)	30.9
Chongju	24(5.19)	140(30.30)	223(48.27)	75(16.27)	28.3
Total	32(3.50)	194(21.23)	477(52.19)	211(23.09)	29.6

2.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度의 要因別 分析

1) 性別에 따른 分析 아들/딸에 대한

아버지의 養育態度 면에서 보면 서울의 경우는 아들에 대한 養育態度 點數가 15.2이고 딸에 대한 養育態度 點數는 16.3으로 딸

의 點數가 아들의 點數 보다 1.1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差異는 $P < .01$ 水準에서 有意한 結果였다. 淸州의 경우는 아들과 딸에 대한 點數가 각각 15.0과 15.4로 그 差異는 0.4로 딸에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도 統計적으로 有意하였다. 또한 서울이 淸州보다 딸에 대한 養育態度 點數가 0.9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과 딸에 대한 아버지의 關心度 面에서는 養育態度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淸州가 똑같이 딸에 對하여 갖는 關心度 點數가 31.4와 29.5로 더 높게 나타났다. 그

差異點數는 서울이 1.0, 淸州가 2.1로 역시 $P < .01$ 水準에서 統計적으로 意義가 있었다. 위와같은 結果는 아버지가 아들 中心으로 생각하던 傳統的 思考로부터 變化된 점과 異性子女에 對한 關心이 더 높아진 점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표 12)

2) 出生順位에 따른 分析

兒童의 出生順位에 따른 아버지의 養育態度에 있어서는 서울이나 淸州에서 모두 意義있는 差異를 보이지 않고 있다. 兒童의 出生順位에 따른 아버지의 關心度도 역시 서울과 淸州에서 모두 意義있는 差異를 보이

〈表 12〉 研究對象兒의 性別에 따른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度

		Sex	M	S. D	F
Rearing	Seoul	male	15.2	2.06	31.04**
		Female	16.3	1.89	
Attitude	Chongju	male	15.0	2.05	5.90**
		Female	15.4	2.02	
Concern	Seoul	Male	30.4	4.24	6.61**
		Female	31.4	4.33	
Extent	Chongju	Male	27.4	5.03	19.72**
		Female	29.5	5.17	

** $P < .01$

〈表 13〉 研究對象兒의 出生順位에 따른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度

		Birth Order	M	S. D	F
Rearing Attitude	Seoul	First	15.8	2.02	0.70
		Middle	15.6	2.13	
		Last	15.7	1.95	
	Chongju	First	15.1	2.11	0.27
		Middle	15.1	2.09	
		Last	15.3	1.95	
Concern Extend	Seoul	First	30.6	4.68	0.47
		Middle	30.0	3.75	
		Last	31.0	4.34	
	Chongju	First	29.1	5.44	2.65
		Middle	27.9	5.04	
		Last	27.9	5.05	

지 않고 있다. 다만 淸州에서 첫째 아이에 대하여 더 높은 關心을 보이는 傾向을 엿볼 수 있다. 이는 地方이 아직도 長男을 重視하는 傳統的 思考方式의 結果라고 解釋된다. <표 13>

3) 아버지의 學力에 따른 分析

아버지의 學力에 따라서 分析한 것을 <표 14>에서 보면 아버지의 子女에 對한 養育態度가 서울은 $P < .05$ 水準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이는데 아버지의 學力이 높을수록 子女에 對한 養育態度 面에서 좋은 傾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淸州에서는 아버지의 學力에 따른 差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버지의 學力에 따른 子女에 대한 關心度에 있어서는 서울과 淸州에서 둘다 學力이 높을수록 子女에 對한 關心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統計的으로는 $P < .01$ 水準에서 有意하였다. 즉 아버지의 教育程度는 子女에게 기울이는 關心과는 關係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아버지의 職業에 따른 分析

子女에 對한 養育態度에 있어서 아버지의 職業 間에는 아무런 差異를 發見할 수 없다. 그러나 子女에 對한 關心度 面에서는 아버지의 職業에 따른 差異를 發見할 수 있는데, 서울과 淸州 모두 公務員과 會社員인

<表 14> 研究對象兒 아버지의 學力에 따른 子女에 對한 養育態度 및 關心度

		School career	M	S. D	F
Rearing Attitude	Seoul	Uneducated	0	0	2.82*
		Primary school	14.5	1.90	
		Middle school	15.1	1.66	
		High school	15.4	2.10	
		College	15.8	2.09	
		College above	16.1	1.90	
	Chongju	Uneducated	14.0	2.45	1.44
		Primary school	15.2	1.90	
		Middle school	15.1	1.84	
		High school	15.1	2.22	
		College	15.4	1.95	
		College above	15.1	2.31	
Concern Extent	Seoul	Uneducated	0	0	4.82**
		Primary school	28.8	2.44	
		Middle school	28.8	5.34	
		High school	30.3	3.82	
		College	31.1	4.35	
		College above	32.0	4.19	
	Chongju	Uneducated	24.6	3.23	7.42**
		Primary school	26.0	5.28	
		Middle school	27.8	5.05	
		High school	28.7	4.92	
		College	29.6	4.89	
		College above	29.8	5.80	

** $P < .01$

* $P < .05$

아버지가 子女에 對하여 더 높은 關心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結果는 統計的으로 $P < .01$ 水準에서 意義가 있었다(표 15).

5) 아버지의 宗教에 따른 分析

아버지의 宗教에 따른 子女에 對한 養育態度를 보면 宗教別로 差異가 없다. 關心度面에서는 人員이 1~3名이 포함되어 있는 儒敎는 小數이므로 除外하고, 서울에서는 基督教과 天主教를 믿는 아버지가 높은 關心을 보이고, 淸州에서는 基督教 信者인 아버지가 더 높은 關心을 나타낸다. 無宗教인 아

버지가 서울과 淸州에서 같이 낮은 關心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結果들은 역시 $P < .01$ 水準에서 統計的으로 意義있는 差異였다(표 16).

3.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도와 子女의 人性과의 相關關係

1) 性別에 따른 分析

男兒와 女兒에 對한 아버지의 養育態度와 子女의 人性과의 相關關係를 보면 6個 領域의 人性特性 중 活動性은 아버지의 養育

〈表 15〉 研究對象兒 아버지의 職業에 따른 子女에 對한 養育態度 및 關心度

		Job	M	S. D	F
Rearing Attitude	Seoul	Agriculture	13.5	1.29	1.92
		Industry	16.1	2.03	
		Commerce	15.4	2.02	
		Official	15.8	1.94	
		Company	15.7	2.14	
		None	14.7	2.06	
		Others	15.9	1.96	
	Chongju	Agriculture	14.9	2.23	0.63
		Industry	15.1	2.37	
		Commerce	15.0	2.07	
		Official	15.4	2.06	
		Company	15.1	2.04	
		None	14.8	1.63	
		Others	15.3	1.99	
Concern Extent	Seoul	Agriculture	30.3	0.96	3.12**
		Industry	31.2	4.41	
		Commerce	30.6	3.97	
		Official	31.9	4.04	
		Company	31.4	3.86	
		None	28.9	4.10	
		Others	29.6	4.85	
	Chongju	Agriculture	25.5	5.30	4.75**
		Industry	26.5	4.00	
		Commerce	28.4	4.91	
		Official	29.5	5.22	
		Company	29.1	4.93	
		None	25.8	5.55	
		Others	27.3	5.13	

** $P < .01$

態度 點數가 높을수록 서울에서는 男兒가 淸州에서는 男女兒 모두가 낮아지는 相關을 나타내었고, 支配性은 養育態度 點數가 높을수록 서울의 男兒가 낮아짐을 나타내었고, 安定性은 養育態度 點數가 높을수록 서울에서는 男女兒 모두가 淸州에서는 女兒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衝動性은 養育態度 點數가 높을수록 서울과 淸州의 男女兒 모두가 낮아지는 相關을 보였다. 思慮性과 社會性은 아버지의 養育態度와는 아무 相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結果는 統計적으로 意義가 있었으며, 相關이 있는 경우에 그 程度는 크지 않으나 人性發達에 영향을 주는 要因이 상당한 많은 것을 考慮하

여 볼 때 이 程度의 相關도 看過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男兒와 女兒에 對한 아버지의 關心度와 子女의 人性과의 相關關係를 보면, 活動性은 아버지 關心度가 높을수록 서울에서는 男女兒 모두가 淸州에서는 男兒가 높아짐을 나타내었고, 支配性은 서울과 淸州의 男女兒 모두가 아버지의 關心度와 比例的으로 증가하는 相關을 보였다. 安定性은 서울의 女兒와 淸州의 男兒가 아버지의 關心度와 相關이 없었다. 思慮性과 社會性에 있어서는 서울과 淸州의 男女兒 모두가 아버지의 關心度와 相關을 보였다. 이러한 相關들은 統計적으로 有意하였다<표 17>.

<表 16> 研究對象兒 아버지의 宗教에 따른 子女에 對한 養育態度 및 關心度

		Religion	M	S. D	F
Rearing Attitude	Seoul	Christian	16.0	2.16	0.90
		Catholic	15.6	1.84	
		Buddhist	15.7	1.95	
		Confucianism	15.3	1.53	
		None	15.6	2.12	
		Others	14.0	2.00	
	Chongju	Christian	15.6	2.37	1.72
		Catholic	15.7	1.77	
		Buddhist	15.1	1.89	
		Confucianism	12.0	0	
		None	15.0	2.12	
		Others	15.9	2.34	
Concern Extent	Seoul	Christian	31.7	4.09	4.01**
		Catholic	31.8	4.15	
		Buddhist	30.8	4.64	
		Confucianism	20.7	5.13	
		None	30.4	3.95	
		Others	28.7	7.02	
	Chongju	Christian	30.0	5.76	4.13**
		Catholic	28.7	4.78	
		Buddhist	28.7	5.06	
		Confucianism	36.0	0	
		None	27.1	4.94	
		Others	30.9	5.01	

**P<.01

〈表 17〉 研究對象兒 性別에 따른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도와 子女의 人性과의 相關

Personality			General activity	Dominance	Emotional stability	Impulsiveness	Reflectiveness	Sociability
Rearing Attitude	Seoul	Male	-.14*	-.12*	.22**	-.13*	-.09	.02
		Female	-.10	-.07	.19**	-.14*	-.09	.01
	Chongju	Male	-.12*	-.07	.08	-.11*	-.01	.04
		Female	-.19**	.07	.23**	-.14*	.09	.08
Concern Extent	Seoul	Male	.12*	.27**	.01	.07	.32**	.22**
		Female	.18**	.23**	.14*	.01	.29**	.30**
	Chongju	Male	.13*	.25**	.14**	.02	.31**	.29**
		Female	.07	.24**	.04	-.00	.32**	.36**

**P<.01

*P<.05

2) 出生順位에 따른 分析

出生順位別 兒童에 對한 아버지의 養育態度와 子女의 人性과의 相關關係를 보면, 活動性은 아버지의 養育態度 點數가 높을수록 서울에서는 첫째 아이가 淸州에서는 첫째와 막내가 낮아짐을 나타내었고, 安定性은 出生順位別로 差異가 없이 서울에서는 첫째, 중간, 막내 모두가, 淸州에서는 첫째만이 아버지의 養育態度 點數가 높을수록 높아짐을 나타내었고, 衝動性은 서울과 淸州에서 첫째만이 아버지의 養育態度 點數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相關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相關은 모두 統計的으로 意義가 있었다.

出生順位別 兒童에 대한 아버지의 關心도와 子女의 人性과의 相關關係를 보면, 活動性은 서울과 淸州의 중간 아이가 아버지의 關心도가 높을수록 높아짐을 나타내었고, 支酌性은 서울과 淸州의 첫째, 중간, 막내 아이들 모두가 아버지의 關心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相關을 나타내었다. 安定性은 淸州의 막내만이 아버지의 關心도와 相關을 보였고 衝動性은 서울의 중간 아이만이 아

〈表 18〉 研究對象兒 出生 順位에 따른 아버지 養育態度 및 關心도와 子女의 人性과의 相關

Personality			General activity	Dominance	Emotional stability	Impulsiveness	Reflectiveness	Sociability
Rearing Attitude	Seoul	First	-.18**	-.04	.25**	-.19**	-.09**	.03
		Middle	-.02	-.08	.15**	-.10	-.03	.03
		Last	-.12	-.13	.21**	.05	-.06	.04
	Chongju	First	-.22**	.02	.21**	-.15*	.04	.07
		Middle	-.10	-.03	.10	-.10	.05	.08
		Last	-.15**	-.10	.13	-.14	.05	.04
Concern Extent	Seoul	First	.12	.20**	.08	-.03	.30**	.21**
		Middle	.21**	.31**	.10	.16*	.32**	.26**
		Last	.12	.30**	.06	-.00	.33**	.36**
	Chongju	First	.10	.29**	.07	-.06	.37**	.34**
		Middle	.16*	.26**	.01	.04	.35**	.37**
		Last	.03	.16*	.27**	.02	.22**	.27**

**P<.01

*P<.05

버지의 關心도와 相關을 보였다. 思慮性和 社會性에 있어서는 서울과 淸州의 첫째, 중간, 막내 모두가 아버지의 關心도가 높을수록 높아짐을 나타내었고 이 모두가 統計的으로 $P < .01$ 水準에서 意義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3) 經濟狀態에 따른 分析

研究對象兒의 經濟狀態를 보통수준과 富裕한 境遇로 나누어서 아버지의 養育態도와 人性과의 相關關係를 보면, 活動性은 서울에서는 모두가, 淸州에서는 經濟狀態 보통인 아버지의 養育態度 點數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相關을 나타내었고, 安定性은 서울의 모든 아이와 淸州의 經濟狀態가 보통인 아이가 아버지인 養育態度 點數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相關을 나타내었고, 衝動性은 마찬가지로 서울의 모든 아이와 淸州의 經濟狀態가 中인 아이가 아버지의 養育態度 點數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相關을 나타내었다. 思慮性은 서울의 經濟狀態가 中인 아이만이 낮아지는 意義있는 相關을 보였다.

經濟狀態에 따라 아버지의 關心도와 子女의 人性과의 相關關係를 보면, 活動性은 서울의 經濟狀態가 보통인 아이와 淸州의 아이들은 經濟狀態와 關係없이 아버지의 關心도가 높을수록 活動的이 되는 相關을 나타

내었고, 支配性 역시 마찬가지로의 傾向이었다. 安定性은 서울과 淸州에서 經濟狀態가 보통인 아이들이 아버지의 關心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相關을 나타내었고, 思慮性和 社會性에 있어서는 淸州의 富裕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서울과 淸州의 아이들이 經濟狀態와 關係없이 모두 아버지의 關心도가 높을 때 思慮性和 社會性이 높아지는 相關을 나타내었다(표 19)

4) 兒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人性平點과의 相關

兒童 스스로가 느끼는 自己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에 따라서 兒童의 人性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分析한 結果가 表 20에 나와 있다. 즉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각각 兒童을 가장 사랑해준다고 생각한 경우를 比較해 보면 活動性은 서울과 淸州가 모두 할아버지인 경우가 活動性이 높았고 淸州는 統計的으로도 意義있는 差異였다. 支配性은 意義 있는 差異는 아닐지라도 서울은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버지인 경우가 가장 높고 할아버지인 경우에 낮았는데 반하여 淸州는 할아버지인 경우 높은 경향을 보였다. 安定性은 서울에서는 별로 差異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淸州에서는 할아버지인 경우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衝

〈表 19〉 研究對象兒 出生 順位에 따른 아버지 養育態度 및 關心도와 子女의 人性과의 相關

Personality		General activity	Dominance	Emotional Atability	Impulsiv-ness	Reflective-ness	Sociability
Rearing Attitude	Seoul	Middle	-.10*	-.07	.20**	-.09*	.04
		Rich	-.23*	-.06	.25*	-.28**	.07
	Chongju	Middle	-.17**	-.06	.15**	-.11*	.01
		Rich	-.00	.06	.08	-.06	.20
Concern Extent	Seoul	Middle	.16**	.26**	.11*	.07	.26**
		Rich	-.00	.13	-.04	-.09*	.43**
	Chongju	Middle	.09*	.23**	.12**	.02	.33**
		Rich	.31*	.29*	.02	.06	.21

* *P < .01 *P < .05 경제상태가 보통이하는 제외하였음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度와 子女의 人性과의 相關研究

<表 20> 兒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따른 兒童의 人性平點

Persondlit		General activity		Dominance		Emotional stability		Impulsiveness		Reflec-tiveness		Sociability		N	
		Seoul	Chongju	Seoul	Chongju	Seoul	Chongju	Seoul	Chongju	Seoul	Chongju	Seoul	Chongju	Seoul	Chongju
Father	M	64.32	48.84	59.19	43.16	43.92	43.06	60.02	46.51	55.98	44.44	61.50	46.70	175	158
	S. D	29.45	32.42	29.98	29.43	27.20	28.70	28.43	31.77	31.01	29.41	29.97	28.79		
Mother	M	62.21	47.98	56.39	40.90	44.02	38.98	59.65	50.56	57.01	41.89	59.99	44.10	219	248
	S. D	30.72	29.44	29.76	28.03	27.89	27.34	29.95	28.18	29.12	28.62	28.62	27.78		
Grand-mother	M	62.47	46.51	50.09	39.91	40.89	40.41	57.98	48.53	49.07	48.26	55.27	35.56	44	43
	S. D	31.21	31.29	32.05	26.36	27.42	24.80	25.03	30.17	32.16	31.40	29.77	25.60		
Grand-father	M	79.43	70.56	46.43	57.67	41.57	56.11	58.29	51.56	58.71	53.44	55.57	56.89	7	9
	S. D	22.84	26.87	31.57	25.95	26.42	30.47	19.62	23.01	30.11	39.35	34.92	23.88		
Others	M	89.00	76.25	67.42	40.00	20.43	49.50	73.14	52.75	54.43	60.25	70.29	32.00	7	4
	S. D	15.96	18.84	29.02	31.19	16.20	32.83	19.09	21.56	31.32	25.53	32.73	27.80		
Total	M	63.76	48.82	56.81	41.90	43.17	40.94	59.82	49.02	55.86	43.74	60.15	44.34	452	462
	S. D	3.015	30.71	30.12	28.35	27.48	27.73	28.60	29.46	30.17	29.37	28.59	28.00		
F		1.89	2.05	1.26	.90	1.37	1.31	.43	.49	.66	1.08	.68	2.01		

人性平點은 百分位 點數임.

<表 21> 兒童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 따른 兒童의 人性平點

Personality		General activity		Dominance		Emctional stability		Impulsiveness		Reflec-tiveness		Sociability		N	
		Seoul	Chongju	Seoul	Chongju	Seoul	Chongju	Seoul	Chongju	Seoul	Chongju	Seoul	Chongju	Seoul	Chongju
Father	M	62.78	47.48	57.79	44.04	45.78	45.65	57.62	46.78	56.87	45.06	60.82	46.95	171	156
	S. D	31.20	31.96	30.57	29.75	27.03	28.03	29.09	31.30	31.20	30.13	28.44	27.11		
Mother	M	62.58	48.73	56.41	41.20	42.52	38.30	60.92	49.88	55.52	43.78	60.32	44.18	203	217
	S. D	29.87	29.55	29.22	28.31	27.62	26.86	29.18	28.34	29.60	28.24	28.37	27.96		
Grand-mother	M	69.65	41.90	55.05	36.08	39.91	40.77	62.58	41.05	52.70	42.54	60.47	36.95	43	39
	S. D	25.91	31.13	31.66	24.60	27.91	26.43	23.65	30.28	29.13	32.63	28.27	27.81		
Grand-father	M	91.75	60.57	45.00	55.14	35.75	59.29	71.75	42.00	76.25	66.57	56.00	60.00	5	7
	S. D	11.21	29.95	34.60	29.11	19.02	28.80	30.05	25.69	10.90	42.72	32.89	25.60		
Elder brother	M	68.75	58.84	63.00	40.11	20.25	36.32	71.25	64.84	26.75	37.11	44.75	36.89	4	19
	S. D	38.96	31.78	31.23	30.63	19.05	28.04	40.74	24.70	19.47	26.64	28.89	30.07		
hounger brother	M	55.58	57.57	49.63	41.65	45.58	31.35	50.37	59.61	52.37	35.70	52.16	43.35	19	23
	S. D	32.06	30.27	33.86	23.10	30.60	30.63	28.32	24.72	32.78	25.09	33.34	31.84		
Others	M	89.14	72.00	78.29	32.00	28.71	67.00	76.14	30.00	75.29	27.00	69.71	17.00	7	1
	S. D	16.57	0	20.97	0	20.59	0	15.40	0	21.34	0	30.92	0		
Total	M	63.76	48.82	56.81	41.90	43.17	40.94	59.81	49.02	55.86	43.74	60.15	44.34	452	462
	S. D	30.18	30.72	30.13	28.35	27.41	27.73	28.63	29.46	30.19	29.37	28.60	28.00		
F		2.03	1.30	.96	.73	1.25	2.32	1.23	2.24	1.58	1.28	.60	1.44		

人性 平點은 百分位임 *P < .05

動性은 서울, 淸州 모두가 큰 差異가 없었고 思慮性은 서울에서는 할아버지인 경우가 높고 할머니인 경우 낮은 편이며, 淸州에서는 할아버지인 경우가 가장 높고 어머니인 경우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社會性은 서울에서는 아버지인 경우가 높았는데 反하여 淸州에서는 할아버지인 경우가 가장 높고 할머니인 경우에 가장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위와같이 結果를 解釋함에 있어서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한 경우는 아주 적었고, 그 다음은 할머니를 지적한 경우도 적었다. 가장 많은 어린이는 어머니가 자기를 가장 사랑해준다고 하였는데 대부분의 家庭이 核家族이므로 自然스런 結果이다. 그다음 아버지를 지적한 어린이도 많았는데 어머니나 아버지를 지적한 경우에는 人性의 6個 領域에서 모두 큰 差異를 보여주지 않았다.

또한 서울과 淸州를 比較해 보면 安定性을 제외하고는 活動性, 支配性, 衝動性, 思慮性, 社會性에서 서울의 兒童들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安定性만은 비슷한 점수를 나타내었다.

5) 兒童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人性平點과의 相關

兒童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兒童의 人性間에 差異가 나타나는가를 分析한 結果는 表 21과 같다. 兒童이 지적한 頻度を 參酌하고 各 人性을 比較해 보면 活動性이 서울은 할머니를 좋아하는 아이가 높은 편인데 오히려 淸州는 낮은 편이다. 支配性은 서울은 差異가 별로 없으나 淸州는 아버지를 좋아할 때 높은 편이고 할머니를 좋아할 때는 낮은 편이었다. 安定性은 淸州에서 아버지를 좋아할 경우가 높았고 어머니를 좋아할 경우는 오히려 낮았다.

이와같은 差異는 統計的으로 意義가 있었다. 衝動性은 淸州에서 어머니를 좋아할 경우가 높았고 할머니를 좋아할 경우에 낮았는데 이것도 有意하였다($P < .05$). 思慮性은 서울은 할머니를 좋아할 때 낮은 편이었고 淸州에서는 差異가 없는 편이고, 社會性은 서울은 差異가 없으나 淸州는 아버지를 좋아하는 경우에 가장 높았고 할머니를 좋아하는 경우가 가장 낮았다.

6) 父子間의 그룹별 子女의 人性平點

아버지와 兒童間에 兒童을 사랑하는 사람과 兒童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버지로서 一致하는 그룹과 아버지가 아닌 그룹 그리고 相互間에 一致하지 않는 그룹으로 區分하여 볼 때 子女의 人性과 相關이 있는지를 分析하여 본 것이 表 22이다. 活動性에 있어서 서울, 淸州 모두 셋째 그룹인 兒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고 兒童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아버지인 그룹이 活動性이 가장 낮은 傾向이었다. 支配性은 서울과 淸州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서울은 둘째 그룹인 兒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이고 兒童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닌 그룹이 더 支配的인 傾向이었고 넷째 그룹인 兒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兒童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닌 그룹 즉 둘다 어머니인 그룹이 가장 덜 支配的인 傾向이었는데 淸州에서는 둘다 그룹이 가장 支配性이 낮았고 또한 첫째 그룹인 양쪽 다 아버지인 그룹이 支配性이 가장 높은 傾向이었다. 安定性에 있어서는 서울과 淸州가 같은 傾向을 보였는데 즉 첫째 그룹이 가장 安定性이 높았고, 둘째 그룹이 가장 安定性이 낮았다. 特히 淸州의 그룹間 差異는 統計的으로도 意義가 있었다. 衝動性은 서울은 둘째 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淸州는 差異가 없었다. 思慮性에 있어

서는 서울이나 淸州가 같게 첫째 그룹이 가장 思慮性이 높았고 둘째 그룹이 가장 낮았다. 社會性은 서울에서는 큰 差異가 없었으나 淸州는 첫째 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以上과 같이 아버지를 中心으로 兒童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일 경우와 兒童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버지일 경우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研究分析한 것은 兒童이 父母로부터 받는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知覺하는가 하는 것과 兒童이 同一視하는 對象에 따라서 人性에서 어떤 特徵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

IV. 論 議

本 研究은 아버지가 子女에게 갖는 養育態도와 關心도가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 그리고 아버지 自身の 學力, 職業, 宗教에 따라 差異가 나는지를 찾아내고, 그와같은 要因들이 子女의 人性과 어떠한 相關關係가

있는지를 밝혀본 것이었다.

本 研究의 制限點을 몇가지 들어보면 첫째 人性發達에 影響을 주는 要因들이 가장 複合的으로 作用할 것이나 다른 여러가지 要因을 한꺼번에 關聯시키지 못하였고, 둘째 아버지의 影響에 대한 研究에서 同居하는 代理 아버지의 役割要因을 相關시키지 못하였고, 셋째 都市와 地方의 差異를 찾아 내려 하였으나 全國에 걸친 標集은 不可能하여 서울과 淸州로 局限하였으며 統計的인 檢證은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制限點에도 불구하고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要因들에 關하여 研究된 結果들을 처음에 認定한 研究問題別로 몇가지 選定하여 整理·論議하기로 한다.

아버지가 子女에 대하여 갖는 養育態度 및 關心은 아들보다 딸에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서울과 地方이 마찬가지로의 傾向이었다. 또한 出生順位가 첫째, 중간,

〈表 22〉 父子間의 그룹별 人性平點

Personality		General activity		Dominance		Emotional stability		Impulsiveness		Reflexiveness		Sociability		N	
		Seoul	Chongju	Seoul	Chongju	Seoul	Chongju	Seoul	Chongju	Seoul	Chongju	Seoul	Chongju	Seoul	Chongju
1	M	63.91	49.60	56.99	46.46	47.08	46.50	57.15	46.39	58.10	47.84	61.61	49.81	120	114
	S. D	29.62	32.44	31.34	29.40	26.65	28.55	28.23	31.92	31.54	29.81	28.10	27.90		
2	M	65.22	46.86	64.00	34.59	37.02	34.16	66.29	46.82	51.36	35.64	61.25	38.66	55	44
	S. D	29.35	32.67	26.40	28.02	27.34	27.45	28.10	31.74	29.60	26.70	27.92	29.83		
3	M	60.12	41.74	59.67	37.48	42.73	43.33	58.73	47.81	53.98	37.50	58.96	39.19	52	42
	S. D	34.80	30.24	28.88	30.03	27.92	26.78	31.28	29.93	30.49	30.04	29.43	23.45		
4	M	64.15	49.94	54.32	41.85	42.68	39.27	59.88	50.73	56.20	44.32	59.37	43.74	225	262
	S. D	34.80	29.67	30.44	27.44	27.58	27.27	28.30	27.90	29.59	29.23	28.99	28.14		
Total	M	63.76	48.82	56.81	41.90	43.17	40.94	59.81	49.02	55.86	43.74	60.15	44.34	452	462
	S. D	30.18	30.71	30.13	28.35	27.41	27.73	28.63	29.46	30.19	29.37	28.60	28.00		
F							*								
		.30	.94	1.72	2.32	1.78	2.86	1.31	.70	.70	2.55	.22	2.59		

人性平點은 百分位 점수임 *P < .05

- * 1.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버지인 그룹
- 2.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닌 그룹
- 3.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버지인 그룹
- 4.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모두 아버지가 아닌 그룹

막내의 어느 위치에 있는 子女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보여주는 養育態度나 關心도에 差異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淸州에서 첫째 子女에 대하여 아버지가 더 높은 關心을 갖는 傾向이었다. 이와같은 結果로 볼때 대부분 40代 初에 있는 아버지들의 子女에 대하여 갖는 價値觀 또는 全般的인 思考가 傳統성을 벗어나 상당히 現代化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 이것은 많은 家庭이 核家族化하는 家族型態를 選擇하는 것에도 起因한다고 볼 수 있다. 아들 보다 딸에 대하여 더 높은 養育態도와 關心을 보여주는 것은 異性子女에 對한 好意를 나타낸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딸에 대하여 保護意識이 높기 때문일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아버지의 教育程度는 子女에게 기울이는 養育態度나 關心도에 差異를 나타내었고 특히 關心度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였다. 이러한 結果로 보아 아버지의 學力이 높을수록 子女에 對하여 바람직한 養育態도를 發展시키며 높은 關心을 表示한다고 풀이해 볼 수 있겠다. 아버지의 職業과도 聯關시켜 볼 때 公務員, 會社員이 子女에 對한 關心도가 높은 傾向이었는데 이러한 職業은 學力이 어느 水準 以上이어야 하므로 역시 學力과의 關係라고 推定해 볼 수 있다. 아버지의 宗教와는 無宗教인 경우보다 서울에서는 基督教과 天主教 信者가, 淸州에서는 基督教 信者가 子女에게 더 높은 關心을 보이는 相關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도와 子女의 人性과의 相關을 性別로 보면 6個의 人性 領域에서 대체로 性差는 나타나지 않은 편이며, 다만 아버지의 養育態도가 높을수록 活動性은 낮아지는 反面 關心도가 높을수록 活動性도 높아지는 相反된 影響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支配性에 있어서는 아버

지의 關心도가 높을수록 子女의 性에 關係없이 支配的인 傾向을 띄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安定性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養育態도와 淸州의 男兒를 제외한 모든 兒童과는 肯定的인 關係를 나타내었고 關心도와는 서울에서는 女兒와 淸州에서는 男兒와 肯定的인 相關을 보였다. 이와같은 結果는 아직도 安定性的 面에서 서울과 淸州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이는 影響이 性에 따라 差異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養育態도가 높을수록 兒童의 衝動性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關心도가 높을수록 兒童의 思慮性과 社會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人性의 全体 領域에 子女에게 기울이는 아버지의 養育態도와 關心도가 影響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相關의 程度도 人性에 作用하는 要因이 많은 것을 考慮할 때 큰 關聯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出生順위에 따른 差異를 보면 아버지의 養育態도와 높은 相關을 보이는 人性은 活動性, 安定性, 衝動性에서 첫째 子女와의 關係이다. 活動性과 衝動性은 낮아지는 相關이다. 아버지의 關心도와 相關을 보이는 것은 活動性에서는 中間 子女이고 安定性에서는 淸州의 막내 子女이고 衝動性에서는 서울의 中間 子女와 높은 相關을 보였고 支配性과 思慮性, 社會性에서는 모든 兒童이 아버지의 關心도와 關聯이 크을 나타내었다. 즉 이러한 結果로 볼 때 父母가 子女에게 많은 關心을 기울일 때 子女의 久性은 바람직한 方向으로 發達할 수 있다는 示唆를 얻을 수 있다.

兒童 스스로가 느끼기에 自己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家族 중에서 누구인가에 따라서 兒童의 人性에 差異가 나는지를 分析한 바에 의하면 活動性에서 淸

州의 경우만이 統計的으로 意義있는 差異였는데 할아버지를 지적한 兒童이 가장 活動性이 높았고 그다음이 아버지를 지적한 경우였다. 兒童이 가장 좋아하는 對象에 따른 差異는 淸州에서 安定性과 衝動性에서만 統計的으로 有意하였는데, 安定性은 할아버지를 좋아할 때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아버지를 좋아할 경우가 높았다. 어머니를 좋아할 경우에 安定性 點數가 낮은 것은 意外의 結果였다. 衝動性에 있어서는 兄을 좋아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어머니를 좋아할 경우였다. 兒童이 知覺하는 바대로 自己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한 對象과 自己가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한 對象은 비슷한 傾向을 보였는데, 둘다 어머니를 지적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아버지였고 다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順序였다.

아버지와 子女가 相互間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關係에 있는지를 그룹별로 區分하여 人性平點에 差異가 있는가를 分析한 結果에서 淸州의 安定性에서만 統計的으로 有意하였다. 兒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自己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모두 아버지인 경우에 安定性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었을 때 安定性이 가장 낮았다. 이와같은 傾向은 서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結果로서 兒童이 아버지를 同一視할 때 安定感이 크며 安定性 發達에 바람직한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과 地方 사이에 子女에 對한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도에 差異가 나타나는지를 比較해 본 바에 의하면 淸州에서 아버지의 關心도가 平均 2.6點 정도가 서울보다 낮은 편이었고, 人性平點에 있어서는 活

動性이 淸州가 서울보다 14.94點, 支配性은 14.91點, 安定性은 2.23點, 衝動性은 10.79點, 思慮性은 12.12點, 社會性은 15.81點이나 낮은 點數를 나타내어 安定性만을 제외하고는 淸州의 兒童이 서울의 兒童에 비하여 人性의 5個 領域에서 平均 13.71點이나 뒤떨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結果로서 地方의 兒童들에게 좀 더 세심한 配慮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父母의 養育關心의 面에서만 아니라 教育環境 構成과 人的紐帶의 面으로도 더 努力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人性發達에 影響을 주는 要因들은 多樣할 것이나 가장 重要한 것은 父母가 提供하는 心理的 環境일 것이다. 또한 人性의 6個 領域, 즉 活動性, 支配性, 安定性, 衝動性, 思慮性, 社會性은 모두 相互 關係를 가지고 作用한다. 그러므로 어느 한가지의 人性特性만을 念頭에 두고 努力할 수도 없거나 바람직한 일도 못된다. 各 人性 特性이 百分位로 볼 때 너무 낮거나(25% 以下) 너무 높으면(75% 以上) 家庭生活과 社會生活에 適應하는데 어렵다. 그러므로 人性의 各 領域에 있어서 適當한 位置에서 調和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子女에 對한 養育態度와 關心도에 作用하는 要因과 子女의 人性과의 相關에 關하여 研究考察하였다. 子女에 對한 어머니의 養育態度에 關한 研究도 계속되어야 하겠으나 병행하여 研究되어야 할 問題는 아버지가 子女에게 주는 影響에 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次後의 研究課題로는 아버지의 養育態度 次元에 作用하는 諸要因을 더욱 具體的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References

1. Andrew, R. O., & Christensen, H. T. *Relationship of Absence of a Parent to Courtship Statu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51, 16, pp. 541-44.
2. Biller, H. B., *Father, Child, and Sex Role*, Lexington, Mass: D. C. Heath and Company, 1971(a).
3. Biller, H. B., *Paternal Deprivation, Lexington, Mass*: D. C. Heath and Company, 1974(c).
4. Blanchard, R. W. & H. B. Biller, Father availability and academic performance among third-grade boys, *Developm. Psychol.*, 1971, pp. 301-5, 309-310.
5. Block, J., Vonder Lippe A., & J. H. Block, Sex-role and socialization: Some personality concomitants and environmental antece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3, 41, pp. 321-341.
6. Breckenridge, Marian E, & E. Lee Vincent, *Child Development*, 1966, W. B. Saunders Company, pp. 138.
7. Bronfenbrenner, Urie. & Maureen A. Mahoney, *Influences on Human Development*, The Dryden Press Adivision of Holt, Rinchart and Winston, Inc, 1975.
8. Coopersmith, S.,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Francisco, W. H. Freeman, 1967.
9. Dowvan, E. & J. Adelson,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Wiley, 1966.
9. Gray, S. W., Perceived similarity to Parents an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1959, 30, p. 91-107.
11. Helper, M. M., Learning theory and the self - concep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5, 51, pp. 184-94.
12. Hexzog, Elizabeth & Cecelia. E. Sudia, Children in Fatherless Families. In Caldwell, Bettye. M. & Henry N Ricciuti(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3, pp. 153-54, pp. 214.
13. Hetherington, E. M., Effects of paternal absence on sextyped behaviors in Negro and white preadolescent males, *J. Pers. Soc. Psychol.*, 1966, 4, p. 87-91. p. 309.
14. Hetherington, E. M. & Jan L. Deur, The Effects of Father Absence on Child development. In Bronfenbrenner, Urie, & Maureen A. Mahoney(Eds), *Influences on Human Development*, The Dryden Press Adivision of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5, pp. 413-24.
15. Hoffman, C. W., *The Father's role in the Family and the Child's Peer-Group Adjustment*, *Merrill-Palmer Quarterly*, 1961, 7, p. 91-105.
16. Hoffman, M. L., Father Absence and conscience development, *Developm. Psychol* 1971, 4, pp. 400-06, pp. 309.
17. Holstein, C. E., The relation of children's moral judgment level to that of their parents and to communication patterns in the family. In R. C. Smart & M. S. Smart (Eds), *Readings in Child Development and Relationships*, New York: Macmillian, 1972, pp. 484-94.
18. Jacobson, G., & Ryder, R. G. parental loss and some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marriage relationship.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969, 39, pp. 779-89
19. Landis, P. H. *Making the Most of Marriage*. New York: Appleton-Centry-Cro-

- fts, 1965.
20. Lazowick, L. M., On the nature of identific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5, 51, pp. 175-83.
 21. Luckey, E. B.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al concep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60, 24, pp. 195-204.
 22. Lynn, D. G., & W. L. Sawrey, The effects of father-absence on Norwegian boys and girls, J, *Abnorm. Soc. Psychol.*, 1959, 59, pp. 258-62, pp. 309.
 23. McCandless, Boyd R, *Children Behavior and Development*,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7, pp. 162-73.
 24. Medinus, G. R., Adolescents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s of their disturbed adolescent chil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70, 76, p. 98-105.
 25. Meerloo, J. A. M., The father cuts the cord: The role of the father as initial transference figur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956
 26. Mischel, W., Preference for delayed reinforcement: An experimental study of cultural observation, *Journal Study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8, 56, p. 57-61.
 27. Mussen, P. H., Yoarg, H. B., Gaddini, R., & L. Morante, The influence of father-son relationships on adolescent personality and attitud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963, 4, p. 3-16.
 28.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29. Santrock, J. W., Father absence, perceived matern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in boys, *Child Development*, 1975, 46, pp. 753-57.
 30. Santrock, J. W., & P. Wohlford, Effects of father absence: Influences of, reason for, and onset of absence, *Proceedings of the 78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70, 5, pp. 265-66.
 31. Sears, R. R., Relation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s to self-concepts and gender rol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1970, 41, pp. 267-89.
 32. Siegman, A. W., Father absence during early childhood and antisocial behavior, *J. Abnorm. Psychol.*, 1966, 71, pp. 71-4.
 33. Slater, P. E., Parental behavior and the personality of the child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962, 101, p. 53-68
 34. Sopchak, A. L., Parental identification and tendency toward discover as measured by MMPI,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2, 47, pp. 159-65.
 35. Stolz, L. M. et al, Father Relations of *War-Born Childre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4.
 36. Watson, R. I., & Clay Henry Lindgren, *Psychology of the Child* John Wiley & Sons, Inc, 1973, pp. 309-10.